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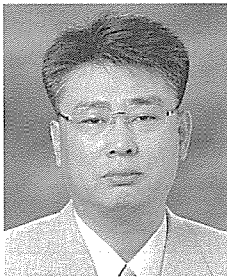
연구소생활 17년 ... “水流不流月”

앵두꽃이 환하게 피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하얗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좁은 화분에서 생의 의지를 펼치는 그 생명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마음껏 자라도록 넓은 곳으로 옮겨 주어야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대로이다.

내가 석·박사 과정에서 효소학(enzymology)을 전공하고 이를 업(業)으로 삼게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서 나는 공학도가 되고 싶었다. V2 로켓을 쏘아올린 폰 브라운 박사를 존경하며 달을 처음 밟은 닐 암스트롱처럼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망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물리나 천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고 두 과목에서만은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도 좋았다.

그러나 공학도를 꿈꾸며 어렵게 입학한 대학생활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거둬지는 데모, 휴강, 그리고 휴교는 대학생활에 회의를 주었고 또 개인적인 나태함으로 공부나 학점따는 일은 관심 밖이었다.

그 당시의 학사제도는 계열별로 입학하여 1년간 수학 후에 전공할 학과를 선택하는 제도였는데, 2학년에 올라갈 때 수학만이 ‘A학점’이었을 뿐, 다른 과목의 학점이 낮아서 내가 원하



羅基晶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책임연구원〉

는 학과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병역특례 위해 생화학 전공

1지망, 2지망, 3지망 끝에 선택된 약학은 원래부터 생물 또는 화학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더욱 재미가 없었다. 2년간의 대학생살을 그렇게 허송하며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군대 안가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신문쪽지를 보여 주었다.

한국과학원(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3년간 연구활동을 하면 병역특례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생물과 화학을 합한 생화학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과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 3월에 연구소에 입사를 할 때

만하여도 ‘doing things right’ (자주적인 생각이나 판단 없이 주어진 일만을 완수하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의미)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고, 습관적으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생명과학분야가 나의 적성에 맞으며 노력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doing right things’ (학점이나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업적 위주가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즐거이 노력한다는 의미)라는 사교로 학문을 하려고 노력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의 힘으로 첫 논문을 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가 전공한 효소학과 생화학이라는 미세기술로는 상약(上藥)인 인삼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좀더 위에서 볼 수 있고 좀더 크게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여 독성학(toxicology), 신장(kidney), 당뇨병, 간(liver) 등 여러 분야의 생리학적 개념을 익히느라 많은 시간을 이에 할애하였다. ‘학생 때에 좀더 배워둘 걸’ 하고 후회도 많이 하였었다. 논문을 투고하는 법을 몰라 대충 봉투에 넣어 원고를 보내니(1989년 12월) 보름쯤 후에 학회의 심사위원측에서 논

나는 어려서 공학도가 되고 싶었지만 석·박사 과정에서
 효소학을 전공하고 이를 업으로 삼게된 것은 우연이었다.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생화학에 접하게 되었고 한국과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후 연구소에 입사했다.
 연구소 생활 17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지나간 시간보다 짧아질 때다.
 무엇을 얻고자 하였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잠시 자신을 돌아본다.

문을 심사하고 있다는 연락이 정중한 편지형태로 왔다. 그들이 어떤 반응(게재수락 또는 거부)을 보낼까 하고 처음 몇달간은 초조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묻기에는 영어가 너무 짧아 그냥 포기하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엽서가 달랑 왔다.

순간적으로 거부(rejected)되었구나 하며 읽어보니 논문게재를 수락(accepted)한다는 내용이었다. 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고 나도 해냈다는 기쁨에 우쭐하였다.

그러나, 투고한지 1년 정도 지나 받아 본 인쇄된 나의 첫 논문에서 발견한 'Received after Correction' (영어를 정정한 후 접수하였음)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자만심을 버려야 했다. 학문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참고: 일반적으로 논문(paper) 앞부분에 '접수(received)하였으며 심사결과 논문게재를 수락(accepted)함' 또는 '처음 접수된 것을 재심사(revised)하여 수락함'이라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제시함] 그들이 그냥 불가(reject)라고 내게 통보하여도 될 것을 왜 굳이 영어를 고치는 수고까지

하면서 게재하여 주었을까? '내 논문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어필하였을까' 하고 수십번 읽어 보아도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좀더 자신있는 태도로 학문을 즐기게(enjoy) 되었고, 그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註 오래된 미국영화를 보다가 코카콜라 광고판에서 'Enjoy'란 단어를 발견하였다. 이는 '자신이 선택하여 마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자체를 즐기는 자세로

연구를 뜻하는 research(다시 찾는다)라는 말에는 재창조적 의미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구분이나 경계없는 배움의 자세, 그리고 진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Think big'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학문의 길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학문 그 자체를 즐기려(enjoy)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연구원으로서의 나의 하루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정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실험을 구상하고 그리고 결과가 도출되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찾는' 단조로운 일상일 수도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자칫 편협된 사고에 묻혀 넉넉함을 잃어 버리기도 쉽다. 나는 가끔 봄을 찾아 길을 떠났던 송나라 어느 여승의 오도시(悟道詩)를 생각하곤 한다. 춘재지상이십분(春在枝上已十分). 온종일 산을 헤매어도 찾을 길 없어 포기하고 기진맥진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봄은 나뭇가지 위에 벌써 와 있었다는 구도의 행각을 노래한 내용이다. 아마도 깨달음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일 것이다.

연구소에 입사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이 지나간 시간보다 짧아질 때다. 무엇을 얻고자 하였으며, 무엇을 얻었는가. 얼마 전에 다정한 친구가 내게 글을 주었다.

수류불류월(水流不流月). 물은 흐르나, 달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일게다. 얻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들수록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라는 어느 옛 시인의 시구처럼 마음을 비우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환하게 핀 앵두꽃을 보며 잠시 나 자신을 돌이켜 본다. ㉟